

##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혁신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수업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수업 혁신의 방식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하브루타(chavruta), 비주얼 싱킹(Visual Thinking)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혁신해나가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3월호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하브루타 수업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공부법으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은 대구 심인중 교사의 하브루타 수업

## 시끄러운 교실? 지금은 하브루타 수업 중!

“낮으로도 잘리지 않았던 우투리(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설화 ‘아기장수 우투리’의 주인공)의 땃줄이 역새풀로 잘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왕은 백성들 중에 영웅이 태어나는 것을 왜 두려워했을까?”

대구 심인중의 국어 수업시간. 학생들은 칠판을 바라보지 않고 옆자리에 앉은 짝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갑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브루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하브루타 수업은 2명씩 짝을 지어 서로에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교과서를 읽으며 궁금한 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점을 메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친구와 토론하며 스스로 글의 인물, 사건, 배경 등을 파악하는 것. 2013년부터 하브루타 수업을 꾸준히 연구해온 유상은 심인중 국어 교사는 1학년 2학기 국어 ‘5. 요약하고 소개하고-(2)줄거리 간추리기’ 단원의 총 3차시 수업을 하브루타 수업으로 진행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 중인 대구 심인중 학생들. 심인중 제공

## 질문하고 답하며 핵심내용 ‘쑥’

본격적인 하브루타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하브루타가 무엇인지, 하브루타 수업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배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하브루타가 유대인들의 교육법이라는 점과 이 교육법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대인이 많다는 점을 일깨워주며 수업에 대한 기대 심리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

1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설화 ‘아기장수 우투리’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친구와 함께 이야기 해보고 싶은 부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등을 질문으로 만들어 활동지에 적는다. 학생들은 “역새풀은 우투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임금과 벼슬아치들은 왜 영웅인 우투리를 잡으려 했을까?” “날개 달린 말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투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와 같이 아기장수 우투리의 사회적 배경, 소재의 상징성 등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유 교사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한 텍스트 당 10~20개 정도의 질문을 생각해내며 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된다”면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칠 때는 교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학습하는 반면, 하브루타 수업에서는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2차시에는 1차시에 만든 질문에 대해 짝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짝과 자신의 질문을 비교해보며 가장 좋은 질문 몇 개를 뽑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질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토론을 통해 짝과 함께 뽑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간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에서 역새풀의 역할은”이라는 질문을 뽑았다면 “역새풀은 우투리의 땃줄을 자르고 바위를 가르는 데 쓰였어” “그럼 역새풀의 역할은 이야기의 전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이 아닐까”와 같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유 교사는 “평소에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들끼리 짝을 짓는 것이 좋지만 학습이해 수준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끼리 묶는 것이 효과적이다”면서 “토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사가 토론하기 좋은 질문에 대한 예시를 주거나 답에 가까운 힌트를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학생들은 하브루타 토론을 통해 친구의 생각 위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더 크고 단단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사회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인 듣기, 말하기, 읽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상대방 의견 존중하는 태도도

3차시에는 교과서의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수업을 한다. 아기장수우투리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줄거리를 간추리는 것이 이 수업의 핵심성취기준.

유 교사는 “이미 1, 2차시를 통해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굳이 작품에 대해 따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이 만든 질문 중 우수한 질문 몇 개를 선정해 반 전체와 공유하며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수업에 대한 평가는 포트폴리오 평가로 이뤄진다.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며 적어낸 활동지의 양과 질을 통해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확인하는 것.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이나 발표하는 모습은 평소 관찰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유 교사는 “짝과 들어서 토론을 해야 하는 수업이므로 ‘내가 안하면 짝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실히 참여한다”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협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 “하브루타 수업, 이렇게 구성하세요”

단계	활동내용	차시
수업 열기	-하브루타 수업의 필요성 제시 -하브루타 질문 생성법 제시 -질문 생성하기 연습	사전활동
홀로 독해	-글(텍스트) 읽기 -각자 질문 생성하기	1차시
질문·토론 독해 공동체	-2인이 짝이 되어 각자 뽑아온 질문을 비교하여 짝과 좋은 질문 선정하기 -짝과 토론을 통해 질문의 답 만들기 -팀별 질문과 답을 모아 학급 전체와 공유, 정리하기	2차시
나아가기	-성취기준에 따른 목표학습 -좋은 질문 중 토론해 볼 질문을 골라 하브루타식 짝토론하기	3차시

1차시와 2차시에 교사는 학생들이 만든 질문이 O/X를 묻는 단순한 질문은 아닌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단답형으로 끝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브루타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되므로 다양한 답을 생각해볼 수 있거나 이야기거리를 이끌어내는 질문이 적합하기 때문이지요.

3차시에는 찬성, 반대로 나뉘어 토론해볼 수 있는 질문을 골라 하브루타식 짝 토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토론을 할 때는 각각 공격자(질문자)와 방어자(지킴이)로 역할을 정합니다. 공격자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방어자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공격자는 방어자의 의견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방어자는 다시 자신의 의견을 증명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서로 역할을 바꿔 한 번 더 토론을 하며 사고력과 논리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테이블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 심인중 학생들. 심인중 제공



## 하브루타 수업 활동지,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유상은 대구 심인중 교사가 전해주는 하브루타 수업 활동지 구성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1  
차시

'아기장수 우투리'를 읽고 친구와 대화해볼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 1차시, 떠오른 질문은 바로 학습지에

1차시는 학생들이 스스로 설화 '아기장수 우투리'를 읽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떠올린 뒤 바로 적을 수 있도록 빈칸 여러 개를 마련해 활동지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요.

학생들은 질문을 만들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교사 등 제3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글을 접한 뒤 질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 즐거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지를 본 뒤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 더 좋은지, 이 질문은 어떤 점에서 좋지 않은지 등을 명확히 이해시켜야만 다른 글을 읽을 때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지요. 교사는 학생들이 일차원적인 질문이나 성의 없는 질문을 만들진 않는지 점검하며 더 나은 질문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2  
차시

'친구와 내가 만든 질문 중 토론해볼 질문 7개를 골라 표에 쓰고, 친구와 토론하여 질문의 답을 정해 봅시다. 그리고 좋은 질문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 2차시, 수준별 학습지로 효율성 ↑

1차시에서 만든 질문을 바탕으로 학생이 짝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며 답을 찾는 시간이 2차시입니다. 질문 옆에 질문에 대한 답을 적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활동지를 구성해야 하지요.

2차시는 토론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자칫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지에 예시 질문을 최소 세 개 정도 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역새꿀의 역할은?' '우투리가 평범한 사람과 달리 가진 능력은?'과 같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을 포함하면 됩니다.

수준별 활동지를 제작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만들어야 할 질문과 답의 개수에 차이를 두어 학습지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수준별 그룹의 이름은 새싹, 꽃, 열매로 나눕니다.

토론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새싹 수준으로 하여 질문 10개, 답 6개를 적을 수 있는 학습지를 주고, 보통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질문 15개, 답 8개를 적을 수 있는 꽃 학습지를,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질문 20개, 답 10개를 만드는 열매 수준의 학습지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비슷한 시간 내에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만들어야 할 질문의 개수가 적으면 시간이 남아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수준별 학습지를 활용하면 이런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학습지를 받길 원하므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 3

#### 차시

이야기를 흐름에 따라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사건을 중심으로 각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요약해보세요.

#### 3차시, 줄거리의 요약은 줄글로

3차시는 앞의 1, 2차시 때 작성한 활동지를 바탕으로 설화 ‘아기장수 우투리’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해보는 수업입니다. 활동지의 1번 문항은 학생들이 설화 속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흐름에 따라 △비범한 출생 △첫 번째 위기 △두 번째 위기 △세 번째 위기 △후일담의 다섯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각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을 적을 수 있도록 옆쪽에 빈칸을 마련해주면 되지요. ‘가난한 농가에서 우투리가 날개를 달고 태어남’ ‘임금이 보낸 군사들이 우투리를 잡으러 들이닥침’ 등 몇 개의 예시 답안을 제공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전체 수업의 핵심성취기준이 설화의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고 줄거리를 간추리는 것인 만큼 활동지의 2번 문항은 학생들이 직접 줄거리를 요약해 줄글로 작성해볼 수 있도록 완전한 빈칸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활동지 활용 효과는?

학생들은 글을 스스로 읽고 활동지에 질문을 적음으로써 국어과에서 요구하는 읽기, 독해, 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지와 친구의 활동지를 쉽게 비교해보며 정리할 수도 있지요. 친구가 만든 질문이 자신의 질문보다 부족하다면 어떤 점에서 왜 부족한지를 스스로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글을 더욱 깊고 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교사는 수업 중간 중간 학생들의 활동지에 적힌 질문을 통해 학생 개인의 수준을 파악하면서 수업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활동지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의 토론 과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 학생들이 제출한 활동지의 양과 질을 보고 수업의 성실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교사의 수업지도 노하우

###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토론 참여”

#### Q. 수업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교사가 원하는 수준의 질문을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에 걸친 피드백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의 활동지를 점검하며 토론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업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다른 수업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점이 다소 어려웠다.

#### Q. 수업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국어 수업은 교사가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분석해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수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글의 주제, 소재, 줄거리 등을 암기한다. 하지만 국어과에서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암기’하는 역량이 아니라, 글을 읽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 하브루타 수업에서는 질문을 만들며 글의 내용을 이해하므로 이와 같은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나서서 발표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친구와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토론의 경우 발언의 기회가 적은 반면 하브루타는 소규모로 이뤄지다 보니 발언 기회가 훨씬 많고,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Q. 이 수업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3차시의 하브루타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심화 학습으로 '테이블 토론'을 진행해볼 수 있다. 교사가 12명의 학생들과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로 토론하며 배우는 것이다. 정답은 없으므로, '틀릴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테이블 토론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질문 또는 다소 어려운 질문 2, 3개를 선정한다. 두 명에서 토론할 때보다 12명이 토론할 때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 교사는 토론의 방향을 지도하고, 적절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한다.

▶유상은 대구 심인중 국어교사